

선교회 소식

양상을 단원 동정

Day	Place	Volunteer
월	Bristol Manor Health Care Center	정준임 집사 인도, 김순희 권사 반주
	Buckingham at Norwood(1 st Fl.)	서연희 권사 인도, 박가희 권사 반주, 이문웅 장로(색소폰)
	Oradell Health Care Center	김은수 집사 인도, Paul Dunn(말씀), 박송이 집사 반주, 윤선구 장로, 김진호 장로(클라리넷), 장병찬 집사(드럼)
	Sunrise of Old Tappan	김학영 권사 인도, 김주연 집사 반주, 송재현 목사(클라리넷), 정은영 사모(플룻)
화	Atrium Post Acute Care of WayneView	이애리사 사모 인도, 김현정 집사 반주
	Atrium Senior Living of Park Ridge	Maria Kim 선생 인도, 박가희 권사 반주
	Sunrise of Cresskill	Sue Lee 집사 인도, 강 희집사 반주, 이문웅 장로(색소폰)
	The Lillian Booth Actors Home	Amanda Bae 집사/Susan Lee 집사 인도, 한경아 집사 반주, 김여진 선생(바이올린)
	한소망 요양원	정종은 집사 인도, 장현경 자매 반주
수	Buckingham at Norwood Care & Rehabilitation Center, Norwood	Jeannie Hwang 선생 인도, 한아정 집사 반주, 윤선구 장로(클라리넷), 정병찬 집사(드럼)
	County Manor Rehabilitation & Healthcare, Tenafly	김금화 집사, 이명옥 권사 인도, 이연옥 반주, 이문웅 장로(색소폰)
	Sunrise of Paramus	정준임 집사 인도, 에스더 양 전도사(말씀), 한자경 집사 반주
	Brookdale Emerson	조미경 집사 인도
목	Armenian Nursing & Rehabilitation	Maria Kim 선생 인도, 문주미 집사 반주, 이문웅 장로(색소폰)
	Atrium Post Acute Care of Wayne	김진옥 집사 인도, 서울옥 집사 반주
	Bergen County Health Care Center Rockleigh	김금화 집사, Brenda 조집사 인도, 이수지 집사, 최수현 집사 반주
	Buckingham at Norwood Care & Rehabilitation Center, 은혜양로원	이명옥 권사 인도, 문행희 집사 반주
	Oakland Rehabilitation & Healthcare Center	정준임 집사 인도, 이해림 집사 반주
	Woodcrest Health Care Center, New Milford	이승진 전도사 인도, 윤주영 집사 반주, 윤선구 장로, 김진호 장로(클라리넷)
금	Atrium Post Acute Care of Park Ridge	정준임 집사 인도, 박수연 집사 반주
	CareOne at The Cupola, Paramus	이미혜 집사 인도, 김순희 권사 반주, Paul Dunn/설국환 전도사(말씀)
	CareOne at Valley, Westwood	Brenda 조집사 인도, 최수현 집사/Soo Park 선생 반주
	버겐병원 내 정신병동	서연희, 양승화 권사 / 최영준 집사 인도, 한경아 집사 반주
	한국 요양원 5동	박성길 장로 인도, 신지연 자매 반주
일	The Lillian Booth Actors Home	Metro Church Member

선교회 특별 활동 행사 일정		
2018년 6월 16일(토) 7:30 PM	선한 이웃 선교회 창립 19주년 기념 자선 음악회	
	West Side Presbyterian Church	
	Ridgewood, NJ	

GOOD NEIGHBOR MINISTRY

Vol. 101 / July ~ September, 2017

선한 이웃 선교회

www.goodneighbornj.org

♪♪♪ 제 101호 뉴스레터는 창립 기념 자선 음악회 및 선한 이웃 양상을 특집합니다. ♪♪♪

아름다운 변화

지난 6월 13일 선한이웃 양상을 출업파티가 있었습니다. 11명의 출업생들과 어머니들의 수고를 감사하며 축하해주는 자리에서 갑자기 울컥하여 말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아이들이 양상을 마치고 나갈 때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한 어머니로부터 그럴듯한 답을 들었습니다. “갱년기라서 그래요……”

어느새 갱년기라는 말이 전혀 낯설지는 않을 만큼이 되었습니다. 일평생 누워서 침침한 불빛에 책을 읽어도 시력에 전혀 지장 없다고 큰소리를 치곤 했었는데 노안이 시작되어 헤대전화 text size는 오른쪽 끄트머리에 가 있고, 새치 하나 없던 머리카락도 이제는 여기저기 흰머리가 빠죽이고 나옵니다. 줄넘기 500개는 거뜬히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줄넘기를 하고 나면 무릎이 아픈듯하여 이젠 줄넘기를 하지 말아야 하는 나이가 되었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이를 먹으며 자연스레 생기는 변화이지만, ‘나이 먹음’이 온 몸으로, 마음으로 확인되어지는 일이 그다지 즐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양상을 학부형으로 12년, 단장으로 3년 있는 동안에 해마다 보여지는 즐거운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양상을 단원들의 변화입니다. 쓸쓸한 노년을 지내시는 분들을 위해 내가 가진 달란트를 쓰고 싶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양상을 시작하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 출업할 때가 되면 우리 양상을 아이들은 지난 3~4년간 양상을에서의 시간이 감사했다고들 밀합니다. 이런저런 일로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는 요즘 아이들이지만, 한 달에 두 세 번씩 있는 양로원 연주, 함께 간 어머니들이 아니면 박수소리마저 힘이 없는 몇 안 되는 청중 앞에서의 연주를 위해 열심히 나오던 그 시간들이 너무도 소중했다고들 말합니다. 가끔은 서로 맞지 않는 소리를 내기도 하지만 이 아이들의 연주를 좋아해주시고, 고맙다고, 또 오라고 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도 알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큰 아이가 5살 무렵, 아이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활동적이고 몸 움직이는 걸 좋아하던 제 아이는 다 듣기도 전에 하고 싶지 않다고 고개를 저으며 내뱉니다. 꼭 가르치고 싶었지만 억지로 시키고 싶지는 않았던 저는 차만 타면 바이올린 연주곡이 나오도록 CD를 항상 자동차 CD Player에 넣어 두었습니다. CD가 한 장만 들어가던 당시, 차에서 바이올린 연주가 시작되면 녀석은 그 시절 좋아했던 Pokémon 음악을 틀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저는 기꺼이 CD를 아이가 좋아하는 것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나 다음 번에 차를 타고 파워를 누르면 또 여지없이 바이올린 선율이 흐릅니다. 아이가 모르게, 차에 타기 전에 미리CD를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바이올린 소리를 자연스럽게 들려주기 원하는 엄마의 의도가 아이에게 들통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며 지내는 동안 바이올린을 배우자는 이야기는 입에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여가 지난 어느 날, 아이스링크에서 스케이트를 타다 말고 나온 아이가 바이올린 배우고 싶으니 빨리 바이올린을 사려 가지고 합니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녀석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다 보니 그 날이 그렇게 왔습니다.

선한 이웃 선교회 미션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 하리로다.” (시편146:1-2)

‘미국 노인 복지 훔’ 중에서 우리가 흔히 양로원이라고 부르는 「널싱홈」은 주로 육신의 기력이 쇠퇴하여 홀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노인들을 위하여 마련된 처소입니다. 따라서 많은 노인들이 세상에서는 마지막으로 거처하는 집이 되기도 합니다. 미국 양로원인 「널싱홈」을 방문하여 그곳에 거주하는 노인들과 더불어 찬송을 함께 부르며 복음을 전하며 여러 모양으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선한 이웃 선교회의 「평신도 양로원 선교역」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깨진 유리 조각 같은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빛나는 유리 구슬로 변화 될 수 있습니다. 양상을 단원들을 비롯하여 선한 이웃 선교회의 모든 봉사자들은 이미 유리구슬처럼 보석같이 빛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함께 모였을 때 더 큰 빛을 발할 수 있게 됩니다. 제게 있어 우리의 지난 6월 자선 음악회는 그 큰 빛을 다시 느끼는 감격스런 시간이었습니다. 연주회를 위하여 매주 모여 땀 흘려 연습한 양상을 단원

들과 김동민 지휘자님, 거친 목소리일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는데 쓰임 받는 것이 감사하여 한 마음으로 합창에 임한 봉사자들과 그 합창을 가능하게 하신 김순희 권사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신 모든 손길들, 작년 연주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다시 아름다운 연주회장을 미리 예약해 놓고 끝도 없는 자질구레한 모든 일을 감당하신 정준임 집사님, 그 외 음악회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 단체들에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보석같이 빛나는 존재로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발하는 ‘선한 이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수진 집사

Director of Good Neighbor Ensem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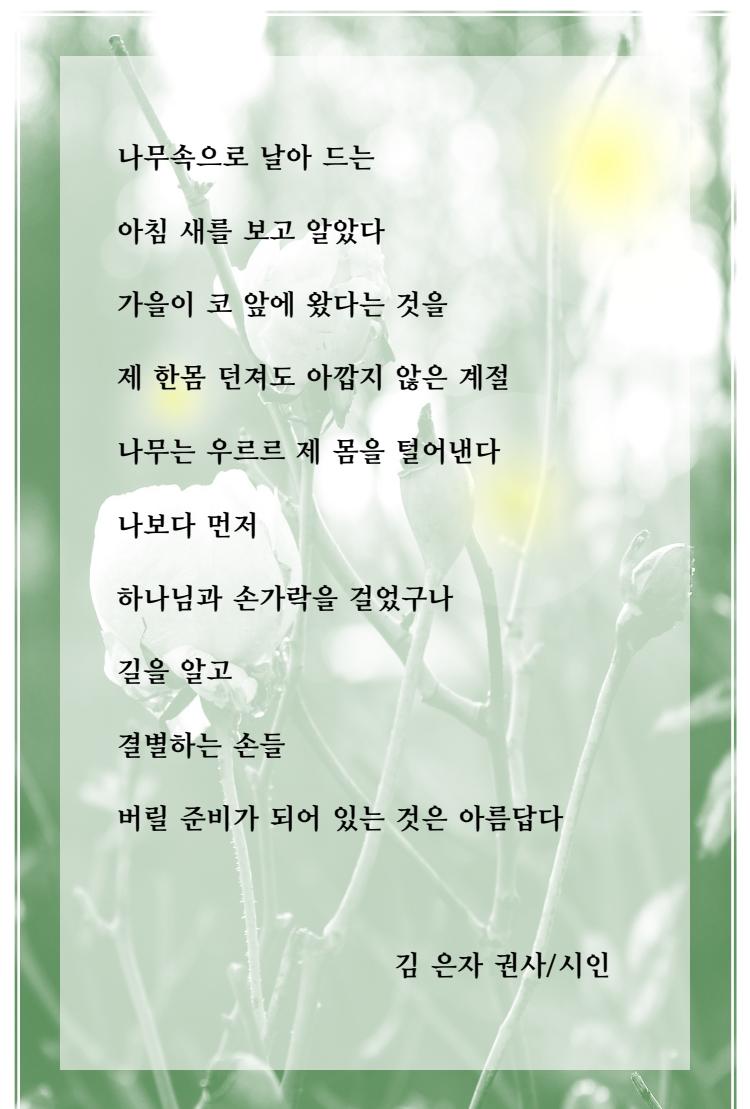
The Epiphany of Joy

약 속의 가을

The spirit of giving develops in many ways, often times in ways that remain hidden from awareness for a long, long time. When I first entered the Good Neighbor community, oblivious to what community service entailed, its perpetual servitude, patience, and commitment, I expected to simply play my violin in front of yet another audience, and when the assigned repertoire was finished, I could go home and think nothing of the weekly encounter. Although collectives allow for strong emotions when everyone within them feel the zeal of what the communities are striving for, even the slightest indifference from one member of the group could potentially jeopardize the spirit, and in my case, I at least knew that I held some skepticism and general indifference in my beginning stages as a musician in the Good Neighbor Ensemble.

However, when that collective was stripped away from me during my times of service in the summer before freshman year of high school, I, vulnerable and exposed, was fully able to analyze my position in these acts of services, my role as an ignorant but privileged boy who could provide happiness to the sick and elderly with a mere stroke of my bow. With a newfound knowledge of service not as choice but as moral and societal obligation, I continued to partake in the ensemble without reluctance or regret, attending the weekly Tuesday rehearsals, travelling to nursing homes and rehabilitation centers whenever there was no schedule conflict with Juilliard Pre-College, and largely did so without bitterness for three more years. The problem with my mindset, however, was not in its lack of negative feelings, but the absence of active need. I understood service as an obligation, but could not see that the obligation brought about a kind of mutualism, in which happiness in others brought me the same, genuine happiness.

With new responsibilities come new experiences, however, and as I served as the concertmaster for the Good Neighbor Ensemble in my senior year of high school, I tried to see people and situations in a new perspective. Although as concertmaster, I did not gain that burdensome of an additional set of responsibilities, I still felt the pressure to set a good example and lead the others both musically and philosophically. Whether I did so through giving tips on technicalities, such as fingerings, bowings, and intonation work, or through general directions regarding etiquettes and organization, I tried my best to perform according to my title. Even with a year of working in a position of leadership, however, I found it rather difficult to naturally transition into a new, higher state of mind. Finding that active joy in spending my time and energy solely for the happiness of others was so hard to achieve. Of course, one could always force that



나무속으로 날아 드는
아침 새를 보고 알았다
가을이 코 앞에 왔다는 것을
제 한몸 던져도 아깝지 않은 계절
나무는 우르르 제 몸을 털어낸다
나보다 먼저
하나님과 손가락을 걸었구나
길을 알고
결별하는 손들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름답다
김 은자 권사/시인

mentality upon himself, but I aspired for a more visceral, organic epiphany.

Despite all the internal concerns, I continued to serve and search, but what I did not realize was that many epiphanies do not reveal themselves in opaque, conspicuous manners, but through subtleties within routine. During the final concert, I watched the audience's faces gleam up with happiness as we played the Beatles songs, especially during Blackbird. Then I saw that the happiness felt by serving others did not come as a big, one-time gift; rather, it was something to strive for on a daily level, to give smiles and to feed off of the smiles of others, as the present positivity, in the now, was what mattered most.

Andrew Kim/Good Neighbor Ensemble
Harvard University

선교회 소식

- ◆ 9월 5일부터 2017년도 하반기 사역이 재개됩니다. 차질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방학 중에도 쉬지 않고 찬양 사역으로 양로원을 지켜주신 양로원 봉사자들께 감사 드립니다.
Oradell Healthcare, 한소망 요양원, Oakland Rehabilitation & Healthcare - 7월말까지 / 버겐병원 내 정신병동 - 방학 없음
- ◆ 9월 20일부터 매주 수요일 Brookdale Emerson에서 찬양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사역 장소를 위해 기도 부탁 드리며, 또한 새로 만들어지는 봉사팀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여러분의 후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창립 18주년 기념 자선 음악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또한 내년에 열리게 될 창립 19주년 음악회의 장소와 일정이 아래와 같이 정해졌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창립 19주년 기념 자선 음악회

June 16, 2018, West Side Presbyterian Church
◆ 2017 선한 이웃 선교회 고 김명신 장학금 수여식이 지난 6월 17일 창립 기념 자선 음악회에서 있었습니다.
장학금 수여자: Brian Park, Noelle Oh, Young Ye Roh,
장학금: 일인당 \$1,500의 학습 보조비

- ◆ Cornerstone Church의 오진영 목사님과 니콜 오 전도사님께서 Olivet UMC Church, Elmer, New Jersey에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귀한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 선한 이웃 선교회 홈페이지 개편 안내: www.goodneighbornj.org
선한 이웃 선교회 홈페이지에서는 선교회 정규 활동 일정 및 각종 소식 등이 제공되고 있으니 자주 방문하여 다양한 정보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 ◆ YouTube Channel을 통해 선교회의 자료와 창립 기념 자선 음악회를 시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YouTube 검색창에서 Good Neighbor Ministry를 검색하시면 선교회 Channel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여 앞으로 올라온 새로운 선교회 관련 영상들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선한 이웃 선교회 창립 18주년 기념 자선 음악회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연주: Brandon Ridenour(Trumpeter), AK Duo(Cellist)-Tomoya Aomori/Julia Minjeong Kang, Jung Yong Kim, 선한 이웃 앙상블, 김동민 집사, 김순희 권사, 박민경 집사, 봉사자 합창단
- 장소: West Side Presbyterian Church
- 녹음 및 녹화: Al Semler, Robert Holloway
- 포스터, 프로그램: 정인애 / 비디오 영상: 정찬미
- 과일: 정구임 권사 / 음료수: 양상불 자모회

【음악회 후원】

서연희, 윤정현/윤희주, 정구임, 임미영, 송희수, 정준임, 김금화, 이수진, Daniel Son, Devin Yang, 박광자, 윤명현/윤민소, 김학영, 정광현/김순희, 서경희/추요석, Ellin Kim, 양성화, Daniel Kim, Joan Lee, Myung K. Kim, Jae H. Myung/Joanna J. Myung, Kenny Yoon, Paul A. Hoelscher, Amy Chung, 조셉정 산부인과, 정내과, 고운이 치과, Main Violin, Imoga, Woodcrest Health Care, Sunrise, 은혜가든, 진고개잔칫집, 김&배 변호사, 뉴저지 장로교회, 초대교회, 한소망교회, 아콜라교회, 머릿돌교회, 베다니교회, Joy Church, River Church, 버겐병원 내 정신병동, 양상불 자모회

◆ 음악회 총 수입: \$32,652.00 / 총 지출: \$11,485.66

◆ 해외 선교 보조: 아이티 의료/학교 보조, 순회 선교

후원해 주신 분들(2017년 6월 ~ 8월)

서연희, 정혜령, 베다니 교회, Joy Church
수입: \$4,800.00 지출: \$8,297.84

선교 회원 동정

◆ 장례:

- ▶ 선한 이웃 앙상블 지휘자로 함께 해주셨던 최진아 집사님께서 7월 1일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유족들께 부활의 위로를 드립니다.
- ▶ 문채선 집사님(문행희 집사 부친)께서 지난 6월 20일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문행희 집사님과 유족들께 부활의 위로를 드립니다.
- ◆ 선교: 박성길 선교사 - 6/4~6/22, 브라질 아마존 원주민 7/23~8/1, 우크라이나 8/23~9/4, 도미니카, 아이티 10/16~10/30, 한국 3교회 집회 10/31~11/15, 미얀마 11/16~11/27, 필리핀 양미영 집사 - 6/17~6/25, 콰데말라, 산안드레스/음악선교 김순희 권사 - 6/26~7/5, 볼리비아 선교 정종은 집사 - 7/8~7/15, 콰데말라 선교 정준임 집사 - 7/22~7/29, 아이티 선교 ◆ 귀국: 천혜숙 집사(한국)-Paramus Sunrise ◆ 모국 방문: 김송이, Paul Dunn, 권나미 ◆ 연주: 정선분 사모-Chamber on Main, 9/17, NV Hall

선교회

소식

기 도 란

† 양로원 사역을 위한 기도

- 노인들의 영육간의 강건과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 봉사하는 분들과 후원하는 분들의 건강과 가정, 사업을 위한 기도
- 새로 시작하는 Brookdale Emerson 양로원 사역을 위한 기도
- 선한 이웃 앙상블 출업생 11명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축복 기도
- 2017~2018 선한 이웃 앙상블 새 단원들을 위한 기도

† 예배 인도자들을 위하여

- 권사: 김학영, 박경옥, 서연희, 양승화, 이명옥, 정혜영
- 장로: 박성길
- 집사: 김진옥, 정준임, Brenda 조, 정종은, 김금화, 조미경, 이미혜, 김은수, 최영준, Maria Kim, Jeannie Hwang, Paul Dunn Amanda Bae, Susan Lee, Sue Lee

전도사: 이승진, 이에리사 사모, 에스더 양, 설국환, Metro Church Member

† 선교사를 위하여

박성길 장로 (순회 선교사), 박문희 집사 (중국 선교)

† 건강을 위한 기도

- 김진호 장로(건강회복/정준임 집사 부친), 최성아 집사(녹내장)
- 종희자 권사, 윤선구 장로(수술회복), 김성부 권사(수술회복), 김진옥 집사(모친), Jeannie Hwang(부친 & 모친), 어혜숙 권사 (건강 회복), 정은영 사모, 전원옥 사모, Sean Lee(건강 회복), Jane(암 투병/Nicole Oh 전도사 친구), Benny De Marco(건강), Nikki Papadopoulos(수술 회복)-Oradell, 박경옥 권사(건강 회복)

※ 양로원 사역 봉사에 관심 있는 분들 연락 바랍니다.

- ◆ 선한 이웃 선교회 소식지: 주님 안에서의 수고와 마음을 담은 여러 사연들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원고와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My GNE Experience

Good Neighbor Ministry has truly been a blessing throughout my high school years. Giving all glory and thanks to God, every function of our group—whether it be the youth orchestra, the board of leaders, or the volunteers—works tirelessly with one shared goal. Our mission is to spread the gospel and God's love by personally visiting various nursing homes in Bergen and Passaic counties to either give performances as an ensemble or have a time of service and fellowship with the senior citizens. The orchestra plays melodious music on rotating Saturday schedules, and the volunteers provide genuine relationships for the seniors during the weekly morning services. The heart that every member of this ministry has for Christ, volunteerism, and senior citizens is both astonishing and humbling.

As the principal flute of the Good Neighbor Ensemble, I have gained so much more than I could have ever contributed. The Tuesday night rehearsals not only taught me responsibility and patience but also introduced me to those who are passionate about music and God. Between the weekly rehearsals and biweekly performances, soon the unfamiliar faces became my closest friends; sharing a passion really does bring people together. With a vast mix of personalities and an array of different backgrounds, we came together harmoniously under our current conductor, Dongmin Kim. Especially during rehearsals, we were encouraged to contribute our opinions and provide constructive criticism to help our entire orchestra. I really appreciated this aspect of the ensemble because I felt that with active volunteers, we were truly cooperating with humble hearts towards the same goal. I was excited to be given the opportunity to use my talents to give back to the seniors.

Seeing the smiles on the faces of senior citizens at nursing homes is the most rewarding gift of volunteering. Some even dance when we play up-tempo pieces and being a source of happiness for them brings me happiness in itself. Many times we had the chance to speak with them after the concert, and they always asked, "When is the next time you guys will come to play for us again?" I was always touched when they invited us again because that meant we were one step closer to achieving our goal. Often they would have tears in their eyes and often I would find myself also in tears, overwhelmed with inexplicable emotions. We would share these flood of various emotions and form a connection with the seniors.

This year, our annual benefit concert was on June 17th, and I would humbly say it was a success. We beautifully performed the pieces we had been rehearsing for the past ten weeks and even played a Beatles medley with trumpet soloist, Brandon Ridenour. While these were the highlights of our concert, my favorite part was at the end when the choir, comprised of volunteers and parents, and the orchestra, comprised of students, performed hymns together even with the audience; this tradition is something I will never forget. While I graduate and leave the orchestra with heavy footsteps, I know that Good Neighbor Ministry will forever have a place in my heart as an integral part of my high school career.

Eunjung Choi/Good Neighbor Ensemble
New York University

Myung Shin Kim Memorial Scholarship Awards

선한 이웃 선교회를 후원해 주시는 모든 교회, 단체, 그리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여러 동역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지난 16년간 선한 이웃 선교회 창립자로서 또 대표로서 모든 봉사자들에게 선한 이웃의 참모습을 보여주셨던 사랑하는 김명신 권사님을 기억하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세상에 도움과 축복의 손길이 되길 원하셨던 그분의 뜻을 받아들여 권사님의 자제들과 함께 저희 선교회는 선한 이웃 선교회 장학재단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학재단을 통해 주님의 나라에 필요한 인재양성에 기여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축복 통로로 사용되셨던 김명신 권사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장학 재단에 도움을 주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 Payable to: Good Neighbor Ministry
- Memo: Scholarship Awards
- Mail to: Good Neighbor Ministry
P. O. Box 110
Closter, NJ 07624

후원해 주신 분들

Joon Chung, Soon & Ester Chung, Paul Kang, Steven Kang, Ok Ja Kim, Hannah Lee, Robert W Lien, Heeju Yoon, 임미영, Kenny Yoon, 송희수, Jaebum Kim/Debora H Kim, 정구임

수입: \$3,900

총수입: \$12,650

총지출 : \$9,000(장학금 수여)

A Letter of Thanks.....

Dear Donors,

I'm sorry I couldn't send this letter sooner, but I really wanted to spend a good amount of time to collect all my thoughts so that I can write everything I want to say. First of all, thank you for selecting me as the winner of the Myung Shin Kim Memorial Scholarship and of course for all your generous donations. When I applied I didn't know much about what this scholarship represented or the story behind it. After going to the ceremony and hearing about all of Ms. Kim's accomplishments, I feel even more honored to be receiving this award. Ms. Kim led a truly inspiring life, in which she only gave to others out of pure joy. I have received more than just money, but also a true understanding of what it means to live out God's love.

Every Tuesdays my parents would go to the nursing home to preach and worship with the elderly. A few times I would come and help as well, but I never knew this organization, the Good Neighbor Ministry started from such a small seed. The video about Ms. Kim showed me how she started small, but worked her way to this beautiful organization. I feel more encouraged to find my passions and use what I love for the work of God.

Currently, I am choosing classes I'm going to take in college. There are so many classes I want to take and learn. This scholarship is such a blessing to my future and will be used to help further my studies. I'm strongly thinking about going into the medical field and help those around me just as Ms. Kim did. I ensure you all that I will continue to work hard as I head off to a new chapter in my life and hopefully spread God's love. Once again thank you all so much for this award and introducing me to such an inspiring woman.

Sincerely,

Noelle Oh
Scholarship Award Recipient
Emory University



The Great Gift

Joining the Good Neighbor Ministry Ensemble has been one of the greatest gifts and pleasures of my life. For the past three years, I have learned so many valuable lessons through this ministry. Performing at various nursing homes, churches, events, and organizations, has captured me to be more dedicated with music and with the residents.



This year, I was appointed as a concertmaster of the Good Neighbor Ensemble. I was delighted, but at the same time, I was hesitant. This meant that attending all the rehearsals and concerts were mandatory. I was no longer only responsible for myself but I was responsible for all the activities of the Ensemble. However, as time passed by, I learned that taking the leadership position from Good Neighbor Ensemble had benefited me to become a more mature musician.

As a musician, I have learned music is the most valuable gift that I can share with anyone. No matter who sits in the audience, they can equally share and enjoy. It can be passion, inspiration, courage, exuberance, melancholy, and indescribable feelings to people. Music is something that not only moves everyone's heart but also represents human dignity, civilization, compassion, and peace. The harmonies never fail to navigate into the inward places of the soul. Also, seeing people communicate through music despite their different backgrounds is quite wonderful.

This ensemble has not only improved me as a leader, but has also transformed me as a person, teaching me patience, leadership and endurance. I've learned how vital communication and teamwork is through this ministry. This invaluable experience I've gained at GNE has inspired me to continue my future with music.

Young Ye Roh/Good Neighbor Ensemble
Manhattan School of Music

